

## [ 오피니언 ]

## 다산포럼

민 병 육



4월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풍습을 따라 1995년 유네스코가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했다. '성 조지' 축제일인 이날 카탈루냐에선 연인끼리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같은 날 문화 세르반테스와 세이스피어도 세상을 뛰어 지자 이참에 세계인 독서진흥의 계기로 삼자며 책의 날로 정했다는 것이다.

## 우리 '책의 날'은 10월11일

세계 80여 나라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부장관과 작가, 시인, 배우들이 여러 곳에서 책 낭독 모임을 갖고 시민들에게 책과 장미를 나눠준다. 출판인들도 대형 서점을 찾아 '성 값싸게 들려 읽기' 캠페인을 벌인다.

가뜩이나 독서열이 퇴색한 요즘, 이렇게라도 책읽기를 권장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남의 풍습을 따라 '영 달이' 마냥 반짝 행사를 치르는 데 대해 쓴

쓸함을 넘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속 좁은 문화적 배타주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현재 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 '백

## '책의 날' 유감

문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출여서 직지심체)과 목판본 책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찍어낸 나라요, 민족이 아닌가.

또 무려 240년이나 공을 들여 8만1천여 나무판에 불전(佛典) 5천2백만 자(字)를 새긴 인류문화의 보물,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책 문화 강국이 바로 우리 아닌가.

서양에선 '지난 1천년간 최대사건이며 문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출여서 직지심체)과 목판본 책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찍어낸 나라요, 민족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이 책과 장미를 나눠주는데 국적을 따지지 않는 건 소아병적이란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날, 내가 가진 역사, 날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은 2005년 "세계는 금속인쇄술에 이어 유비쿼터스까지 두 번이나 한국에 큰 신세를 졌다"며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인쇄술은 한국에서 건너온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점수일-한국 속의 세계), 지식과 종이, 활자의 행복한 만남을 통해 책을 대량 생산하는 원조 기술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젠 거꾸로 서양의 기념일을 빌어 책에 대한 열기를 끌어올리고 부산하다. 젊은이들은 앞선 우리 문

보다 뛰어난 기록이 임연히 있는데도 그 건 놀든 채 남의 풍습, 남의 기념일을 무비 판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분명 좋은 건 아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배알조차 없다고 편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 방송사 무관심만 탓하기엔...

더욱 속상하는 건 정작 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들의 철저한 무관심이다. 공영을 강조하는 TV방송사들이 올해 초부터 책 관련 프로그램은 몽땅 들어내 버렸다. 교육방송조차 교양으로서의 책 프로그램을 하기도 운용하지 않는다. 스페인이나 그 주변 나라들이 '책 관련국' 칭호를 따기 위해 심지어 드라마에까지 책 읽는 모습을 넣도록 종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하기야 우리 정부가 문화부 출판 부서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배정한 예산이 국민 1인당 40~50원에 불과할 뿐이다. 방송사를 탓할 이유가 없다. 이라고도 아이들에게 책과 장미를 나눠주며 책 읽기를 습관화하자고? 그것보다 우리 나름의 책의 날, 독서의 날을 당장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는 게 더 급하지 않을까.

〈한국기행물운리위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서재의



인간이 태어나서 성공을 위하여 한평생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나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모두가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건 왜일까?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 무언가가 다른지 않을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과 태도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순간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 그 과정과 열정과 노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출근시간 전에 출근해 하루 계획을 하는 것, 제출 서류를 약속 시간에 맞춰 제출하는 것 등 사소한 것에서의 성실한 행동이 성공으로 나아가게 한다.

셋째, 계속 흥진(에너지)하라.

하루하루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인맥이 좋아지고 지식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가? 성공은

## 성공을 만드는 습관

력은 잊어버리고 성공했다는 황홀감에 아름다움에 취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배할 힘은 없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지배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째, 꿈을 가져라.

생각하는 사람이 별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보다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값진 삶을 산다.

둘째, 성실하여야 한다.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이다. 넷째, 올바른 정신과 건강이다. 돈만 밟히다가 우정이나 건강을 잃은 것은 성공이 아니다. 회사일만 하다가 가정을 잊는 것도 성공이 아니다. 성공은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성은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 과정은 힘들지만 이를 즐기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어진 일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 이를 토대로 보람을 느끼고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 성공이란 바로 이런 철학들의 결과물이며 그러한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 휴일 인터넷 쇼핑객 울리는 '떴다방' 사기 주의해야

요즘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간편하고 값도 좀 싸다 보니 인기가 있다.

젊은 주부들이나 마땅히 시간 내기 곤란한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변에서 인터넷 판매를 이용한 사기꾼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소위 인터넷 떴다방이라고 불리고 한다.

이 사기꾼들은 주로 휴일에 사기를 치고 빠진다. 즉 휴일에는 인터넷 업체들의 담당 직원들이 전부 다 휴무이다 보니 직접 전화로 사기피해 신고가 불가능하고, 기껏해야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알려두는 게 전부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메일로 신고하는 것은 그 다음 월요일이나 담당자가 확인하게 되니 이 사이에 사기꾼들은 이미 쇼핑몰을 폐쇄하고 달아나 버린 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는 주로 다른 제품보다 싸게 판

다는 점을 미끼로 내건다. 이걸 본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어 그래도 직접 전화까지 걸어보는데 이 사기꾼들은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구매 절차와 제품의 특징들을 잘 설명하면서 구매자들을 압박시키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택배로 다음날 도착한다고 했던 물건은 오지 않고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사기꾼은 입금된 돈을 찾은 뒤 전화를 끊고 잠자코 상태가 된다. 이럴 때 사기꾼들은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니 잡아내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부랴부랴 해당 직거래 사이트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보지만 휴일이라 사이트 담당자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는 최대한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구매하는 게 상책이며, 무조건 값이 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권순도·광주 남구 입촌동

## 농촌경제 위협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했으면

예전에는 농촌에도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부터는 구멍가게가 수익이 나지 않아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더니 최근에는 농촌에 거의 다 사라졌다.

물론 이런 대형마트들이 농민들에게 물건을 좀 싸게 팔고, 농산물을 함께 취급해 주면 누가 농촌에서 영업을 한들 농민들에게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음면 단위 대형 마트와 편의점은 영업시간을 제한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농촌 상권이 대형자본에 빨려들어가 지역경제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종학·담양군 수복면

## [ 시설 ]

## 지역제품 '세계명품'으로 키워 낙후 벗자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울산이다. 울산의 현대차 점유율은 80%를 넘어서 90%를 웃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현대차가 생활 달릴 수 있는 것은 울산시민들의 애정심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는 교촌치킨, 떡보의 하루 등 토종브랜드를 잇달아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 교촌치킨은 대구시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 브랜드로 성장했다. 현재 전국에 1천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치킨은 음식을 몰아 미국 LA와 뉴욕에 6개 매장을 확보했다. 대구에는 중국 상하이에도 첫인점을 개설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변신중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지역 브랜드를 둘러싼 환경은 열악하기 짱이 없다. 무

## '미네르바' 무죄판결 뭘 의미하나

법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하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논란이 많아지지 않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겸찰이 박씨가 올린 두개의 글은 문제 삼아 적용한 법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하위의 통신을 하면..."이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우리나라 또한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점차 늘리는 반면, 장애인 고용 회피 기업에 대한 부담금 수준은 더 높아져 한다. 장애인의 무고용 재외 직종의 범위도 줄일 필요가 있다. 고용업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을 무정부적인 공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무차별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틀린 담론'이 아니라 '다른 담론'에까지 법의 장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법을 도출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이다. 재판부가 겸찰이 문제 삼은 박씨의 글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의 일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근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등 언론에 대한 일련의 검찰 수사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건전한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無等鼓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거리 풍경은 아마도 자전거 행렬일 것이다. 대도시에서 농촌까지 자전거는 남녀노소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중국으로 자전거는 '자전거'로, 사람이 페달을 밟음으로써 스스로 가는 차라는 뜻으로 중국 서민들에게 분신 같은 존재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전거 공유·대여제도인 '벨리브' (Velib)가 파리지앵들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자전거 '벨로' (Velo)와 자유 '리베르' (Liberté)를 합성한 벨리브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전거를 구입한 뒤 시민들에게 싼 이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벨리브는 일정한 연회비를 낸 후 카드를 발급받아 저렴하게 빌려 탈 수 있으며 대여소가 비치된 시내 어느 곳에나 자전거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통분담 효과가 뛰어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가 줄줄 애용돼 왔다. 지금도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라운 경치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전거는 그만큼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마이카 시대가 전개되면서 자전거는 푸대접을 받아야 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모두 새 차를 사느라 자전거는 창고지기 신세가 됐다. 선진국에서 자전거가 생활의 친구로 거듭나는 사이 우리는 친면 친례가 앞서 번듯한 승용차에 시선을 빼앗겼다.

한때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자전거 선호로 번창했던 자전거 제조업도 빈사지경이다. 높은 인건비 때문에 생산 라인은 모두 해외로 옮겨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성장 구호와 함께 자전거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강조했다.

복잡한 도시에서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건강에 좋고, 에너지까지 아껴주는 자전거야말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힘자다.

〈박지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광주 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吉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금 22-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부	사회 2부 2200-692	경영 2부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		